이력서



조수경 1994년 (28세) | 여 | 재직중

♠ (42270) 대구 수성구 욱수천로

핵심역량 " 개인/법인 사업자 가맹점 신규&제신고 서류 수취 / 접수

■ 전산 조회 가능/카드 단말기 간단한 AS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대학교(4년) 졸업
 경력 2년 8개월
 회사내규에 따름
 대구전체

 (직전 연봉 : 2,800 만원)
 정규직

학력 최종학력 I 대학교 4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3.02 ~ 2017.02	졸업	배재대학교 (대전)	분자과학부 생물의약학과 (부전공)	2.59 / 4.5
2010.03 ~ 2013.02	졸업	대구중앙고등학교	이과계열	-

경력 총 2년 8개월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직종	연봉			
2018.04 ~ 2020.11 (2년 8개월)	신화정보시스템	접수팀 / 사원 (팀장) / 3년차	대구 / 경영·사무 > 사무보조·문 서작성	2,800만원			
	담당업무) 서류 수취 및 팀원 관리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21.05	자격증/면허증	그래픽기술자격(GTQ) 1급	한국생산성본부(KPC)	최종합격
2018.02	자격증/면허증	컴퓨터활용능력2급	대한상공회의소	최종합격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 아침에 부모님이 깨워주고 가시면 준비하고 학교 갔었는데 하루는 늦잠을 자서 눈뜨고 너무 놀라 부모님께 전화해서 학교 못 갔다고 울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학교에 가라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늦었지만, 학교 도착했는데 선생님께서 다독거려 주시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하는 지각이라 결석하고 싶은 하루였지만 부모님과 선생님이 응원해 주셔서 그 뒤로는 지각없이 무사히 학교 잘 다녔습니다. 그때 그일 이후로는 학교나 회사 다니면서도 지각이나 결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맡은 일이 있을 때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랑 책임 감이 생겼습니다.

성격 및 장단점 : 저는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정보시스템에 근무했을 때 주 업무가 카드사 가맹점 서류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 서류가 수취 된 것은 다음날 출근 후 업무를 가장 먼저 처리합니다. 하루는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중 미성년자의 서류를 처리하는 중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학생증으로 신분을 대체해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드사에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맹점 개설을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가맹점이 개설되어야 결제할 수 있고,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가맹점 개설이 필요하였습니다. 가맹점 개설하려면 추가 서류가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메모하여 대표님께 요청해 가맹점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뒤로 미성년자 대표자가 카드사 가맹점 개설이 필요한 경우 이전에 메모했던 걸 확인하면서 서류를 받아 카드사 가맹점까지 문제없이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처리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드를 입력할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메모하면서 큰 틀을 확인함으로 써 좀 더 깔끔하게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 때문에 실수를 대비할 수 있고, 빠르게 결과를 만들 어낼 수 있습니다.

경력 사항 : 직업 훈련 기관에서 디자인 수업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친구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제품 상세 페이지 하나 간단하게 만들면 된다고 만들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교육 과정이 시작한 단계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러스트 이미지는 준비되어 있어서 따로 만들어야 하는 건 없었습니다. 아직 수업에서는 폰트에 대해서는 수업 시작하기 전이여서 우선 작업물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물어보고, 선생님께서도 피드백 잘해주 셔서 상세페이지 3페이지 정도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마무리돼가는 지금에서야 다시 작업물을 보면 폰트도 아쉽고, 상품 배치도 아쉬웠습니다. 작업물 만들면서 선생님께서도 최종이 최종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작하면서 보니까 이전 작업물로 돼야 하는 일도 있었고 저장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틈틈이 한다고 했는데 파일 최종적으로 주는데 2~3주 정도 걸렸던 거 같습니다. 지금 다시 그 작업물을 보면 아쉬운 게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보다 디자인 보는 눈이 그때랑은 달라졌구나 하고 알 수 있었어요. 다시 또 기회가 온다면 그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 제작한 페이지가 인터넷에 올라가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뿌듯하고 디자인의 재미를 처음 깨달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입사 후 포부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코딩을 시작할 때는 HTML에서 h1 태그부터 배웠습니다. 코드값 한 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훈련 기간 중 시간 내에 배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 수업하다가 이해하기 전에 다음 진도가 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주말에 보강도 참여하면서 선생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배운 내용으로 복습도 하면서 배운 내용을 블로그에 코드랑 결과물, 설명도 덧붙여 작성하니까 머릿속으로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HTML이 익숙해지고 CSS, JS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운 내용으로 클론 코딩도 해보고 홈페이지 리뉴얼도 하니까 생각했던 코드를 입력하면 결괏값이 같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구현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주위에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코드를 보면서 디버깅하니까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코드를 완성하고 결과물을 보면 어렵긴 했지만 뿌듯함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면서 코딩에 매력에 빠지게 된 거 같습니다. 일하면서도 분명 막히는 부분이 생기고, 버그도 생길 겁니다. 홈페이지를 만들다 버그가 생기면 구현했던 걸 한 단계씩 되돌아가다 보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험을 토대로 인터넷도 검색하고, 물어보면서 한 단계씩 빠르게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공부하고, 물어보면서 금방 응용해서 할수 있도록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